

## [글로벌 최첨단 소재기업으로의 도약]

제이앤티씨, 반도체 유리기판에 하드디스크 유리플래터까지...

"글로벌 Top Tier 하드디스크 제조사에 베트남 현지법인 양산라인을 통한 첫 출하"

- ▶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및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투자로 대용량 하드디스크 수요급증
- ▶ 베트남 현지법인 1차 양산라인 Set-up 완료를 통한 글로벌 톱 티어 HDD제조사 샘플 공급 개시
- ▶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유리플래터 시장진입으로, 반도체 유리기판과 함께 '투트랙 성장' 본격화

<2025-12-15> 제이앤티씨가 한국에 이어 베트남 현지법인의 1차 양산라인 Set-up을 완료하고, 해당 라인을 통한 글로벌 톱 티어 하드디스크 제조사에 유리플래터 양산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.

글로벌 최첨단 소재기업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제이앤티씨(204270, 대표이사 조남혁, 장윤정)가 15일, 글로벌 톱 티어 HDD제조사에 차세대 신제품 관련 HDD유리플래터 양산준비 본격화로 반도체 유리기판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최첨단 유리소재 시장에서 그 입지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
제이앤티씨가 이번에 HDD(하드디스크) 유리플래터를 본격 공급하게 된 고객사는 글로벌 톱 티어 HDD 제조사로서, 제이앤티씨는 해당 고객사로부터 빠른 대응력과 고품질 제품력을 인정받아 엄격한 품질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. 현재는 고객사의 2026년 향 신규 프로젝트의 본격 양산을 대비한 증량평가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.

제이앤티씨가 반도체용 유리기판(TGV)과 함께 신규사업으로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유리플래터는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원형의 부품으로, 현재 글로벌 고객사와 공동개발 및 양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제품은 고객사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HDD의 핵심부품으로 알려져 있다. 더불어 HDD는 현재 AI 및 클라우드 시대에 데이터센터 저장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알루미늄 소재에서 유리소재의 사용과 함께 다방면에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그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.

제이앤티씨 회사 관계자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HDD 시장환경의 흐름에 맞춰 최근 제이앤티씨는 "생산능력(CAPA) 확보를 위해 베트남 비엣찌시 공장 설비투자 규모를 기존 200 억 원에서 330 억 원으로 확대됨을 공시했고, 이는 2026년 양산 전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 캐파 확보가 필요해졌다"고 밝힌 바 있으며, 이에 대한 초기 투자자금 또한 이미 확보가 된 상태라고 전했다.

제이앤티씨 조남혁 대표는 “현재 TGV유리기판도 국내외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, 16개 고객사와는 초기 품질테스트 통과되어 현재 유상 샘플 공급단계로 전환 및 구체적인 상용화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”라고 전했다. 특히 “HDD유리플래터는 고객사와의 증량평가 진입과 샘플물량 증가, 투자 확대 모두가 공급계약 체결 및 양산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신호”라며 “최종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일정과 맞물려 HDD유리플래터의 양산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, TGV유리기판과 함께 당사의 2026년 및 중장기 실적개선에도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”고 전망했다.

한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시장규모는 2025년 현재 314 억 달러에서 2037년에는 1,000 억 달러 이상까지 성장(CAGR10% 이상)할 것으로 전망된다. 업계에 따르면 이와 연계된 유리플래터 기반의 HDD 수요는 AI, 클라우드,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확산 및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그 성장세가 큰 폭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. 따라서 금번 제이앤티씨의 글로벌 HDD 고객사에 대한 유리플래터 샘플공급의 본격화는 그 의미가 특별하며, 관련 업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.

#### ◆ 참고자료

##### 제이앤티씨 베트남 양산라인 HDD 유리플래터 제품출하 이미지

